

---

# 대외활동은 역시 축평원 서포터즈!

단국대학교 박소희

---





### #설레는 서포터즈의 시작

저는 5월 2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28일 해단식까지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서포터즈 2기 3조 “돼충해유”조 조장 박소희입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입학 당시부터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단국대학교 대표로 축산물품질평가대회를 준비하던 도중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 2기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기는 1기와 다르게 충청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된 후, 발대식 날에 팀원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앞으로의 서포터즈 활동이 잘 진행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 #꾸준한 노력의 온라인 활동

서포터즈 2기 활동은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활동은 온라인 활동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축산물이력제, 축산물등급제 등과 같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축산물 상식, 축평원 뉴스, 축산물 요리 레시피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 축산물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의 꾸준한 노력은 좋은 반응으로 이어졌고, 서포터즈를 시작하기 전보다 한 달 블로그 방문자 수가 17배나 급증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우리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길거리 및 대형마트 홍보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관련 행사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저희 서포터즈들은 주로 축산물이력제를 소리 높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변점 롯데마트 정육점 앞에서는 축산물의 주요 소비자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천안 길거리 시내에서는 젊은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를 홍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들은 축산물이력제의 필요성과 직접 조화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이력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축산물이 어디서 사육되었고 도축되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작은 캠페인을 시작으로 한 사람이 변화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물이력제도 저희들의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활용하시게 되고, 또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캠페인 기획, 마트 섭외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혼자 했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미션을 진행하면서 함께한 팀원들에게 고맙고 같이 서포터즈 활동을 무사히 수료하여 정말 기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좋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 #가까워진 나의 꿈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정확히 깨닫고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역량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깊게 고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지금까지의 대외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더욱 부합하는 축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개월간의 시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활동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